

■ 2022년 민간소공연장지원 공모 심의총평

- 사업명 : 2022년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민간소공연장지원)
- 회의일시 : 2022년 4월 19일(화) 13:30~17: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위원회의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예술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조금씩 회복을 위한 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에 2022년 민간공연장활성화 지원사업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공고문에 명시된 바대로 특성화된 전문 극장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기초공연예술 유통채널과 관객 접점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소, 연기된 공연의 제작비 및 초청료를 지원하여 민간소공연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천만원 정액을 지급했던 작년 내용에서 달라진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계의 손실 보전을 위하여 시행한 소액다건 방식의 긴급지원성 사업에서 본래의 취지대로 전환하여 총 지원금 내에서 사업 목적에 부합한 공연장을 선정하여 단계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과 다원예술 5개 분야 총 157건의 신청 사업 중 최종 21건의 단체를 선정하였는데, 여전히 코로나 감염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공연예술계에 충분한 마중물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심의과정) 심사위원단은 접수된 단체별 신청서와 심의자료를 전수 검토한 후 토론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채점하고 고득점자순으로 선정단체를 결정하였습니다. 토론과정에서는 각 장르 분야별 특이점과 흐름, 지역의 특수성 등 현황에 대해 심의위원간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이어졌으며 이견이 있는 경우라도 최종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심의기준) 공고문에 있듯이 사업계획의 우수성(40%), 공연장 운영(40%), 사업의 기대효과(20%)를 기준으로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기획공연의 우수성과 예산계획의 적정성, 공연장운영역량과 관객개발에 관한 계획과 노력,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즉, 기초예술분야 공연장 활성화라는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공연장의 비전과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선행하고 목표를 확실하게 수립하였는지, 그에 따라 계획한 기획공연이 구체적이며 예술적 가치가 드러나는지, 수입과 지출 예

산계획이 합리적인지

- 공연장 운영을 위한 조직 체계가 업무별로 구축되어 있는지, 비록 소수일지라도 효율적인 인력 구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해와 안전에 관한 매뉴얼과 충분한 대응 계획이 존재하는지
- 해당분야와 지역 그리고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기반으로 목표를 세웠는지

○(종합의견) 뛰어난 기획력으로 공연장의 특성을 고려한 (레퍼토리·정기)공연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관객개발에 전념하며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안전한 공연장을 운영하려는 단체가 있어 고무적이었습니다. 해당 분야와 지역에 바람직한 기여를 하고 있어 공연장 활성화를 실현시킬 공간으로 기대가 큼니다.

반면 더러는 오락성과 상업성 위주거나 기초예술분야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공연을 기획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계획의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공연장이 아닌 단체 운영을 중심으로 제출한 신청서의 경우는 비록 정체성이 분명하고 우수한 공연기획이라 할지라도 좋은 평가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단체가 사업 세부예산에서 유료 기획공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티켓판매 수입금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는데 차후에는 이 점 유념하셔서 작성하시면 더 합리적인 예산서로 나온 평가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과 다원예술 5개 각 장르별 지원예산 배정 기준에 따라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원금 배정 시 지원신청서에 제출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신청액을 최대한 보전하면서도 극장의 자부담 능력 등을 감안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원신청서에 제출하신 계획대로 사업을 수행하시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본 사업 심의는 문예진흥기금 규정에 따라 ‘지역균형지원제도’가 적용되는데 최종 선정 후 이를 살펴보니 규정에 정한 바를 충족시켜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공연예술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른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생채기가 컸던 만큼 우리 공연예술계가 예년의 모습으로 언제 전면 회복될지 가늠할 수는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예술가로서, 예술업 종사자로서 예술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위해 노력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민간소공연장지원) 지원심의위원 일동